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7(1) : 3~13, 2002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7(1) : 3~13, 2002

동일지역 초·중등학생의 식생활태도와 학교급식에 대한 태도의 비교

박명희† · 최영선 · 김연주

대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Comparison of Dietary Attitudes and Attitudes to the School Lunch Service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the Same Region

Myeung-Hee Park,† Young-Sun Choi, Yeun-Ju Ki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Taegu University, Taeg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ietary attitudes of students and changes in their attitudes toward the school lunch service.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483 students ranging from thir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middle school sophomores living in the Seoguipo area of Jeju Island. The subjects were asked to complete questionnaire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ir teachers or dietitians, and data were grouped into elementary school 3rd and 4th grades, elementary school 5th and 6th grades; and middle school 1st and 2nd grades for each gend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with respect to their regularity of food intake, dietary considerations, or the frequency of imbalance in their diets. In the case of female participants, their frequency of snacking decreased as their grade level increased. In general, the overall changes in dietary attitudes became more negative as their grade level increased. Male students demanded increased serving sizes of both staple food and side dishes, while female students demanded increased serving sizes of side dishes, but not staple food as their grade levels increased. There was als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in higher grades who discarded or did not eat enough their entire meals. The major reasons for not eating the food were: 'no taste to the food' and 'not proper saltiness of food'. These results may suggest that school dietitians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increased taste and proper seasoning of meals. Students suggested that the school lunch service should be continued, but that it needs improvement. Students in higher grades were mo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meal was provided. Also, an early education in nutrition and healthy diets seemed important in preparing them for following a healthy lifestyle in later life.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7(1): 3~13, 2002)

KEY WORDS: school grade level · dietary attitudes · school lunch · food habits.

서 론

영양상태를 좌우하는 식습관이나 기호는 인간이 후천적으로 형성해온 생활양식으로 유아기와 아동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그 이후의 식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Wilson 등 1979).

체택일 : 2001년 12월 26일
†**Corresponding author**: Myeung-Hee Park,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Taegu University, 15, Naeri-Dong, Jinryang-myon, Kyungsan, Taegu 712-714, Korea
Tel: 053) 850-6832, Fax: 053) 850-6839
E-mail: parkmh@taegu.ac.kr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신체적 성장과 아울러 자아개념의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시기의 식습관 형성은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이다(Williams 1988).

한편 중등학생 시기는 사춘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급속한 성장과 함께 성적 성숙이 가속화되므로 영양공급과 환경요인이 좋으면 성장관련 유전 능력이 최대로 발휘되므로 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은 성인기에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이영미 1985). 이 시기는 체조직이 증대하면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여 제2의 급속한 성장과 성적성숙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러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사고의 성숙과 심리적인 미묘한 변화를 맞게 되는 등 생애주기로 볼

때 육체적, 정신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불안정한 시기이다.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가족의 특성, 부모의 식습관, 우상적 인물, 사회적 · 문화적 규범과 같은 외인성 요인(Story & Resmickl 1986)과 생리적 특성 및 영양요구량,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인식, 개인적 가치관과 믿음, 자아개념, 기호, 심리발달 상태 및 건강과 같은 내적인 요인이 포함되므로(Tanner 1981) 식사의 질은 이러한 식습관 형성 요인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이원희 등 1988 ; 노희경 2000). 청소년기에는 잦은 결식, 빈약한 아침식사, 식사시간의 불규칙(김정현 등 1998) 및 입시에 대한 중압감과 사춘기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로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이러한 식생활 행동은 식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이건순 등 1997).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식생활 문제점으로 식사시간의 불규칙, 결식, 편식, 과식, 가공 및 인스턴트 식품의 다량섭취의 순으로 나타났고(고영자 등 1991), 무절제한 식사요법, 편의주의적 식사형태로의 변화, 열량위주의 간식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이경신 등 1988) 건강상의 문제점을 비롯한 여러 현상들이 도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시기는 다른 연령층과 구별되는 식행동 특성을 갖고 있다.

학교급식의 장점과 효과를 평가한 연구 분석에 의하면 신체발육촉진, 건강증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식품선택능력의 증진, 편식 교정, 식사예절과 태도의 변화, 식사와 관련된 위생관리 등의 식습관 개선, 가정과 지역사회의 식생활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1992). 대전지역 초등 급식학교의 식습관 조사 결과(박종임 1998)에 따르면 좋아하지 않는 음식은 거의 먹지 않으며 저학년의 식습관이 고학년보다 우수하다고 하여 학년에 따라 식습관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중등학교 급식에 대한 연구보고는 급식실시를 위한 예비조사(이미숙 등 1994)를 비롯해 중 · 고등학교 급식이 나아갈 방향제시(이원묘 1966)가 보고되었고 학생의 급식만족도의 비교(박영숙 1997)가 보고되었을 뿐 중등학교의 급식상황이나 중등학생의 급식에 대한 태도, 급식식품에 대한 기호도, 섭취상태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초등학생과 중등학생 각각의 식습관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에 대한 연구는 많이 발표되었지만 초등학생에서 중등학생에 이르는 시기의 식생활습관의 변화나 학교급식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에 이르는 시기의 식생활습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적인 연구가 요구되나 현실적으로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횡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 사이에 변화되어 가는 식생활습관과 학교 급식에 대한 태도를 간접적이긴 하나 종적인 연구의 효과를 내기 위해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이 공통의 환경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초등학교 졸업 후 같은 지역 중학교로 입학하는 여건을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까지 연령의 변화에 따른 식생활습관을 비교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 · 고등학교 학교급식이 실시되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 동일 지역에서의 초 · 중등학생들, 특히 아동기에서 사춘기에 이르는 연령대의 식습관, 식생활과 학교급식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성장하는 과정에서 식생활의 변화의 방향과 정도를 파악하고, 그와 같은 변화가 학교급식에 어떻게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하며, 조사에서 얻은 기초 자료는 앞으로 질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학교급식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에 소재한 남원, 태흥, 의귀초등학교의 3~6학년 학생 각각 110명, 113명, 44명과 남원중학교 1~2학년 학생 216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1999년 6월중에 실시하였다. 이들 학교 초 · 중등학교는 1명의 영양사가 2개 학교의 급식을 관리하는 공동관리교에 해당하였다.

남원, 태흥, 의귀초등학교는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에 소재한 농어촌형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로서 총 학생수가 350명 이하인 소규모이며 이들 학생들은 졸업하면 같은 지역 내 남원중학교로 입학하게 된다.

본 조사 대상 거주지역은 제주도 내에서도 농촌지역으로 인구의 이동이 거의 없으며, 조사대상 3개 초등학생들이 조사대상 중등학교로 모두 진학하므로 초등에서 중등에 이르는 시기의 식생활습관의 변화를 종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대상으로 조사하기에 적합한 지역적 특성을 지녔다.

따라서 이들 초등학생과 중등학생들은 공통의 환경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변화되어 가는 식습관과 음식 기호도를 간접적이긴 하나 종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조사는 설문지조사로 진행되었다. 설문지 내용은 학생들의 식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일반환경요인,

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by grade and gender UNIT : N(%)

		ES 3	ES 4	ES 5	ES 6	MS 1	MS 2	Total
Total		51(10.6)	79(16.4)	48(9.9)	89(18.4)	103(21.3)	113(23.4)	483(100.0)
Sex	Male	21(9.5)	38(17.1)	20(9.0)	41(18.5)	46(20.7)	56(25.2)	222(100.0)
	Female	30(11.5)	41(15.7)	28(10.7)	48(18.4)	57(21.8)	57(21.8)	261(100.0)

ES 3 : Elementary school 3rd grade ES 4 : Elementary school 4th grade ES 5 : Elementary school 5th grade
ES 6 : Elementary school 6th grade MS 1 : Middle school 1st grade MS 2 : Middle school 2nd grade

Table 2. Dietary attitude of subjects UNIT : N(%)

		Male	Female	Total
Regular in eating	Very regular	45(20.8)	37(14.5)	82(17.4)
	Relatively regular	128(59.3)	172(67.2)	300(63.6)
	Relatively irregular	31(14.4)	38(14.8)	69(14.6)
	Irregular	12(5.6)	9(3.5)	21(4.4)
		$\chi^2 = 9.100$ $p = 0.168$	$\chi^2 = 11.300$ $p = 0.080$	
Facts in food intake	Nutrient	17(7.8)	14(5.4)	31(6.5)
	Balanced intake	82(37.6)	121(46.7)	203(42.6)
	Taste	76(34.9)	76(29.3)	152(31.9)
	Food safety	–	7(2.7)	7(1.5)
	Don't know	43(19.7)	41(15.8)	84(17.6)
		$\chi^2 = 10.301$ $p = 0.113$	$\chi^2 = 12.010$ $p = 0.151$	
Unbalanced diet	Rarely	69(32.4)	50(19.4)	119(25.3)
	Intermediate	130(61.0)	194(75.2)	324(68.8)
	Frequently	14(6.6)	14(5.4)	28(5.9)
		$\chi^2 = 4.124$ $p = 0.660$	$\chi^2 = 2.241$ $p = 0.692$	

식습관, 식생활태도, 학교급식에 대한 의식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3. 통계 처리

SPSS package program(release 7.5)을 사용하여 성별, 연령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식습관, 식생활태도, 학교급식에 대한 의식은 초등 3,4학년군(ES 3,4), 초등 5,6학년군(ES 5,6), 중등 1,2학년군(MS 1,2)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생활습관 관련 변인과 식습관의 분포는 교차분할분석에 의하여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환경

조사대상자의 학년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전체 483명 중 남학생이 222명(46.0%), 여학생이 261명(54.0%)이었고 초등학생은 55.3%, 중등학생은 44.7%이었다. 초등 3학년 10.6%, 4학년 16.4%, 5학년 9.9%, 6학년 18.4%, 중등 1학년 21.3%, 2학년 23.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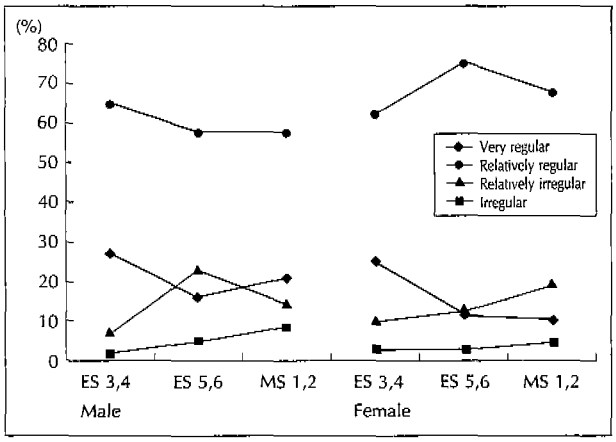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of regularity in eating.

2. 식생활태도

식사의 규칙성 여부는 Table 2와 같다. 남학생의 59.3%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20.8%가 '매우 규칙적'으로 식사한다고 응답해 전체 남학생의 80.1%가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14.5%가 '매우 규칙적', 67.2%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식사한다고 답해 전체 조사자의 81.0%가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바람직한 경향을 보였다. 남녀 모두에서 초등학교 3,4학년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비율이 91%와 87%였으나 중등학교 1,2학년은 78%와 76%로 떨어졌으며, 초등학교 5,6학년은 중간이었다. 그러나 남학생은 초등학교 5,6학년군이 불규칙적인 식사의 경향을 나타낸 반면 여학생은 학년이 높을수록 불규칙적인 식사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Fig. 1).

전삼녀와 노희경(1998)의 연구에서 69.4%가 아침식사를 결식했으나 박복희와 정경일(2000)은 68.3%가 아침식사를 한다고 하였고, 박경복 등(1996)은 아침식사를 한 학생이 어떤 형태로든 70%였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주혜 등(1993)도 서울시내의 어린이 69%가 아침식사를 한다고 하였으므로 초등학생들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김정현 등(1998)에 따르면 중학생의 61%가 아침을 걸렀으며, 심경희와 김성애(1993)가 보고한 청소년 아침

결식율은 초등학생보다 높아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결식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희숙 · 김영옥(2000)도 아침식사를 매일 하는 아동이 6학년보다 3학년에서 많았으므로 본 연구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불규칙적인 식사의 경향이 있음과 같은 경향이었다.

평소 음식을 먹을 때 우선 고려하는 사항(Table 2)은 남학생의 경우 '골고루 먹으려 한다'는 것이 37.6%, 그 다음으로 '맛있는 음식'이 34.9%였다. 여학생의 경우도 46.7%가 '골고루 믹으려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으로 '맛있는 음식'이 29.3%로 남녀의 차이가 없었고 남녀학생 모두에서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맛있는 음식'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증가하였다. 남자는 초등학교 5,6학년 때 '맛있는 음식'에 대한 고려사항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골고루 먹겠다는 비율이 중등학교 1,2학년이 되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여자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골고루 먹겠다는 생각과 '영양적인 고려사항'은 그 비율이 떨어지면서 맛있는 음식에 대한 생각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생 남녀 모두 음식을 먹을 때 '골고루 먹으려 한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중학생은 남자에서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하는 경향이 높았다. 우리 몸 속에 필요한 영양소는 한 가지만 없어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으므로 여러 가지 종류의 식품이 골고루 배합된 균형된 식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의 42.6%만이 '골고루 먹으려 한다'고 답해 균형있는 식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편식정도를 알아 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편식을 하는 정도는 전체 조사자의 74.7%가 음식에 따라 '조금'하거나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식을 안 하는 남학생이 32.4%인 반면 여학생은 19.4%이고, 음식에 따라 조금 하는 여학생도 75.2%로 나타나 남학생(61.0%)에 비해 많았으므로 여학생의 편식이 남학생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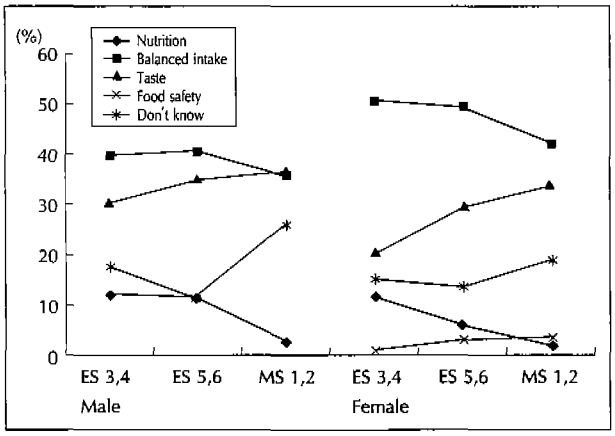

Fig. 2. Distribution of considerations in food intake.

Table 3. Kinds and frequency of snacks taken by subjects

UNIT : N(%)

		Male					Female				
		Sub total	ES 3,4	ES 5,6	MS 1,2	Sub total	ES 3,4	ES 5,6	MS 1,2	Total
Kinds	Beverage, Fried noodle	25(11.5)	9(15.5)	3(5.1)	13(12.9)	16(6.3)	5(7.4)	9(12.3)	2(1.8)	41(8.7)
	Pan-broiled, Rice cake	86(39.4)	18(31.0)	21(35.6)	47(46.5)	71(28.0)	19(27.9)	20(27.4)	32(28.3)	157(33.3)
	Cake	58(26.6)	17(29.3)	19(32.2)	22(21.8)	99(39.0)	27(39.7)	22(30.1)	50(44.2)	157(33.3)
	Bread	19(8.7)	3(5.2)	5(8.5)	11(10.9)	25(9.8)	4(5.9)	9(12.3)	12(10.6)	44(9.3)
	Milk	17(7.8)	5(8.6)	7(11.9)	5(5.0)	20(7.9)	8(11.8)	4(5.5)	8(7.1)	37(7.8)
	Fruit	3(1.4)	2(3.4)	–	1(1.0)	18(7.1)	5(7.4)	8(11.0)	5(4.4)	21(4.4)
	Ices	5(2.3)	2(3.4)	3(5.1)	–	3(1.2)	–	1(1.4)	2(1.8)	8(1.7)
	Others	5(2.3)	2(3.4)	1(1.7)	2(2.0)	2(0.8)	–	–	2(1.8)	7(1.5)
		$\chi^2 = 21.061$, p = 0.276					$\chi^2 = 26.710$, p = 0.085			
Frequency	1 – 2 times/day	113(51.6)	29(50.9)	32(52.5)	52(51.5)	117(45.9)	26(37.1)	36(49.3)	55(49.1)	230(48.5)
	3 – 4 times/day	24(11.0)	6(10.5)	8(13.1)	10(9.9)	24(9.4)	12(17.1)	7(9.6)	5(4.5)	48(10.1)
	1 – 2 time/week	27(12.3)	7(12.3)	6(9.8)	14(13.9)	27(10.6)	8(11.4)	6(8.2)	13(11.6)	54(11.4)
	3 – 4 time/week	15(6.8)	2(3.5)	3(4.9)	10(9.9)	37(14.5)	4(5.7)	17(23.3)	16(14.3)	52(11.0)
	5 – 6 time/week	21(9.6)	3(5.3)	7(11.5)	11(10.9)	25(9.8)	8(11.4)	5(6.8)	12(10.7)	46(9.7)
	None	19(8.7)	10(17.5)	5(8.2)	4(4.0)	25(9.8)	12(17.1)	2(2.7)	11(9.8)	44(9.3)
		$\chi^2 = 12.809$, p = 0.235					$\chi^2 = 25.618$, p = 0.004			

ES 3,4 : Elementary school 3rd, 4th grade ES 5,6 : Elementary school 5th, 6th grade MS 1,2 : Middle school 1st, 2nd grade

다. 남학생 중 편식을 '안 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학년별로 비교해보면 각각 23.6%, 37.9%, 34.0%로 초등 5,6학년 중 편식을 안 하는 학생이 37.9%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에서는 편식을 '안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학년별로 비교에서(Fig. 2) 각각 20.0%, 16.2%, 21.1%로 중등 1,2학년군이 가장 편식을 하지 않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집단간 유의차는 없었다. 박경복 등(1996)의 경주, 포항지역의 급식학교 3개교의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71.9%가 조금 편식을 하고, 12.1%가 심하게 하는 편이었던 결과에 비해 편식정도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농촌 지역의 특성과 학교급식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이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식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조사대상자가 가장 즐겨먹는 간식의 종류로는 남학생의 경우 39.4%가 라면과 떡볶이, 26.6%가 과자였고 여학생의 경우 39.0%가 과자, 28.0%가 라면과 떡볶이로 나타나 주로 먹는 간식의 종류로는 여학생은 과자를, 남학생은 라면으로 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뚜렷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인 농촌지역 학생들의 간식으로는 학교 근처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자, 라면, 떡볶이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간식의 빈도(Table 3)는 '1일 1~2회'가 48.5%로 가장 많고, '1주일 1~2회'가 11.4%, '1주일 3~4회'가 11.0%, '1일 3~4회'가 10.1%, '거의 안 한다'가 9.3%이었다. 남학생에서 간식 빈도가 '1일 1~2회'가 초등 3,4학년군 50.9%, 초등 5,6학년군 52.5%, 중등 1,2학년군 51.5%로 군간 유의차는 없었고 여학생에서는 초등 3,4학년군 '1일 1~2회'가 37.1%, '1일 3~4회'가 17.1% 순이었고 초등 5,6학년군 '1일 1~2회'가 49.3%, '1주일 3~4회'가 23.3% 순이었고 중등 1,2학년군 '1일 1~2회'가 49.1%, '1주일 3~4회'가 14.3% 순으로 군간 유의차를 보여 고학년군으로 갈수록 간식의 빈도가 적게 나타났다($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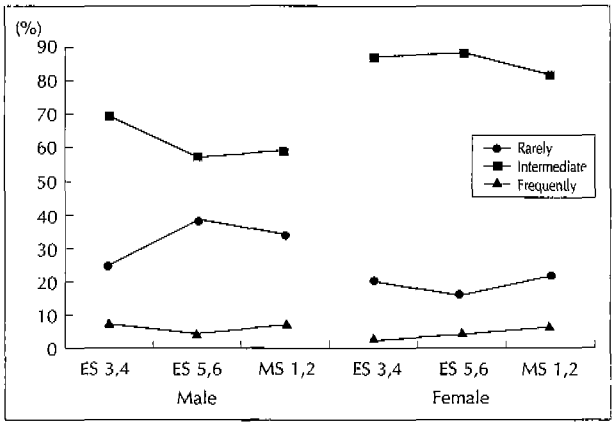

Fig. 3. Distribution of unbalanced diet.

농촌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삼녀와 노희경(1998)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간식빈도는 하루 1~2회 76.4%, 하루 3회 이상 16.6%이었고 서울지역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정미 등 1996)결과에서 보면 하루 1~2회 51.4%, 하루 3~4번 이상 19.3%, 일주일에 3~4번 15.6%, 일주일에 1~2번 9.6%와 비교하면 본 조사 대상자의 간식의 빈도는 위의 연구에서보다 낮게 나타났다.

음식을 먹는 양(Table 4)을 살펴보면 전체 남학생의 29%가 '많이 먹었다가 때로는 적게 먹었다가 한다'고 응답했고, 23.5%가 '대체로 적당량 먹는다'고 답했다. 학년별로 비교를 해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등 3,4의 30.5%, 초등 5, 6의 26.2%, 중등 1,2의 15.8%가 '항상 배가 부르도록 먹는다'고 응답했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일수록 식사량이 많은 경향이 유의적으로 줄어듦을 알 수 있었다($p < 0.05$). 여학생은 전체 36.9%가 '많이 먹었다가 때로는 적게 먹었다가 한다'고 응답했고, 29.2%가 '대체로 적당량 먹는다'고 응답했으나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학교급식에 대한 의식

1) 학교급식에 대한 평가

학교급식에 대한 의견은 Table 5와 같다. 남학생에서 초등 3,4학년군은 '그대로 계속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6.9%인 반면에,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으로 갈수록 '조금 개선해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50.8%, 56.4%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 < 0.01$). 여학생의 경우도 그대

Table 4. Meal quantity taken by students

UNIT : N(%)

	Male				Female				
	Sub total	ES 3,4	ES 5,6	MS 1,2	Sub total	ES 3,4	ES 5,6	MS 1,2	Total
Enough	50(22.6)	18(30.5)	16(26.2)	16(15.8)	19(7.3)	3(4.3)	3(3.9)	13(11.4)	69(14.3)
Enough or small quantity	64(29.0)	13(22.0)	14(23.0)	37(36.6)	96(36.9)	22(31.4)	33(43.4)	41(36.0)	160(33.3)
Always proper quantity	41(18.6)	13(22.0)	16(26.2)	12(11.9)	49(18.8)	11(15.7)	18(23.7)	20(17.5)	90(18.7)
Almost proper quantity	52(23.5)	10(16.9)	11(18.0)	31(30.7)	76(29.2)	27(38.6)	19(25.0)	30(26.3)	128(26.6)
Stop eating before	14(6.3)	5(8.5)	4(6.6)	5(5.0)	20(7.7)	7(10.0)	3(3.9)	10(8.8)	34(7.1)
	$\chi^2 = 17.372$, $p = 0.026$				$\chi^2 = 12.476$, $p = 0.131$				

ES 3,4 : Elementary school 3rd, 4th grade ES 5,6 : Elementary school 5th, 6th grade MS 1,2 : Middle school 1st, 2nd grade

로 개선해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초등 3,4학년군은 56.5%인 반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비율이 떨어져 중등 1,2학년은 19.6%로 낮아졌으며, '학교급식이 없는 편이 좋다'는 의견은 학년이 높을수록 높아졌다($p < 0.01$). 그러나 '조금 개선해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여($p < 0.01$) 학교급식이 계속되기를 희망하면서도 고학년군으로 갈수록 학교급식에 대한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조금 개선하여 학교 급식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영상(1996)의 한국과 일본 아동의 학교급식에 관한 의식 비교에서 한국 아동의 58.9%가 '조금 개선해서 학교급식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와 일치했다.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주식의 양과 반찬의 양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Table 5에서 주식의 양은 전체학생의 56.3%가 '알맞다', 23.8%가 '조금 많다'로 답하였고, 전체학생의 9.5%가 '조금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학년별로는 남학생에서 '알맞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에서 각각 69.6%, 65.6%, 46.5%로 고학년군으로 갈수록 '알맞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p < 0.05$) 여학생에서도 '알맞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이 각각 76.8%, 52.7%, 43.4%로 고학년군으로 갈수록 '알맞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밥의 양에 대해 고학년으로 갈수록 불만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p < 0.01$). 남학생에서는 '조금 많다'와 '조금 부족하다'는 응답이 중등 1,2학년군에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개인차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여학생에서는 '조금 많다'는 응답이 고학년군으로 갈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급식시 남학생은 밥의 양을 고학년으로 갈수록 많이 배식하고, 여학생의 경우는 고학년일수록 밥의 양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중등학생은 개인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밥은 자유로이 양을 정해서 먹을 수 있도록 자유배식 방법을 시도하면 불만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반찬의 양에 대하여 전체학생의 58.0%가 '알맞다', 16.3%가 '조금 많다', 16.3%가 '조금 부족하다'로 답하였다. 남학생에서는 '알맞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에서 각각 64.3%, 50.0%, 44.6%로 고학년군으로 갈수록 '알맞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조금 많다'는 응답도 고학년군으로 갈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

Table 5. Reputation on school lunch

UNIT : N(%)

		Male				Female				
		Sub total	ES 3,4	ES 5,6	MS 1,2	Sub total	ES 3,4	ES 5,6	MS 1,2	Total
Opinions on school lunch	Continue as it is	86(39.1)	33(56.9)	23(37.7)	30(29.7)	90(35.2)	39(56.5)	29(38.7)	22(19.6)	176(37.0)
	Need to be improved	104(47.3)	16(27.6)	31(50.8)	57(56.4)	114(44.5)	19(27.5)	33(44.0)	62(55.4)	218(45.8)
	Have noting to say	16(7.3)	7(12.1)	3(4.9)	6(5.9)	37(14.5)	9(13.0)	12(16.0)	16(14.3)	53(11.1)
	Cessation	14(6.4)	2(3.4)	4(6.6)	8(7.9)	15(5.9)	2(2.9)	1(1.3)	12(10.7)	29(6.1)
		$\chi^2 = 17.431$, $p = 0.008$				$\chi^2 = 32.698$, $p = 0.001$				
Quantity of staple dish	Too much	21(9.6)	4(7.1)	7(11.5)	10(9.9)	28(10.9)	2(2.9)	8(10.8)	18(15.9)	49(10.3)
	Somewhat much	40(18.3)	10(17.9)	8(13.1)	22(21.8)	73(28.5)	12(17.4)	23(31.1)	38(33.6)	113(23.8)
	Adequate	126(57.8)	39(69.6)	40(65.6)	47(46.5)	141(55.1)	53(76.8)	39(52.7)	49(43.4)	267(56.3)
	Somewhat insufficient	25(11.5)	3(5.4)	6(9.8)	16(15.8)	11(4.3)	2(2.9)	4(5.4)	5(4.4)	36(7.6)
	Insufficient	6(2.8)	0(0.0)	0(0.0)	6(5.9)	3(1.2)	0(0.0)	0(0.0)	3(2.7)	9(1.9)
		$\chi^2 = 16.965$, $p = 0.03$				$\chi^2 = 23.989$, $p = 0.002$				
Quantity of side dish	Too much	12(5.5)	4(7.1)	6(10.0)	2(2.0)	5(2.0)	1(1.4)	4(5.3)	-	17(3.6)
	Somewhat much	28(12.9)	10(17.9)	10(16.7)	8(7.9)	49(19.3)	18(26.1)	18(24.0)	13(11.8)	77(16.3)
	Adequate	111(51.2)	36(64.3)	30(50.0)	45(44.6)	162(63.8)	48(69.6)	49(65.3)	65(59.1)	273(58.0)
	Somewhat insufficient	49(22.6)	5(8.9)	10(16.7)	34(33.7)	28(11.0)	2(2.9)	4(5.3)	22(20.0)	77(16.3)
	Insufficient	17(7.8)	1(1.8)	4(6.7)	12(11.9)	10(3.9)	0(0.0)	0(0.0)	10(9.1)	27(5.7)
		$\chi^2 = 27.040$, $p = 0.001$				$\chi^2 = 40.508$, $p = 0.000$				
Saltiness	Very salty	9(4.1)	1(1.8)	4(6.7)	4(4.0)	3(1.2)	1(1.4)	-	2(1.9)	12(2.6)
	A little salty	23(10.6)	5(8.8)	2(3.3)	16(16.0)	28(11.2)	7(10.1)	6(8.1)	15(14.0)	51(10.9)
	Moderate	157(72.4)	49(86.0)	49(81.7)	59(59.0)	186(74.4)	58(84.1)	62(83.8)	66(61.7)	343(73.4)
	A little mild	25(11.5)	2(3.5)	4(6.7)	19(19.0)	26(10.4)	2(2.9)	5(6.8)	19(17.8)	51(10.9)
	Very mild	3(1.4)	-	1(1.7)	2(2.0)	7(2.8)	1(1.4)	1(1.4)	5(4.7)	10(2.1)
		$\chi^2 = 22.632$, $p = 0.004$				$\chi^2 = 19.440$, $p = 0.013$				

ES 3,4 : Elementary school 3rd, 4th grade ES 5,6 : Elementary school 5th, 6th grade MS 1,2 : Middle school 1st, 2nd grade

였다($p < 0.01$). 반면 '조금 부족하다'는 응답은 고학년군으로 갈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여 고학년군으로 갈수록 반찬의 양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반찬의 양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많이 늘려줄 필요가 있겠다.

급식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간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Table 5), 전체 학생의 73.4%가 '알맞다'고 응답했고, '약간 짜다'와 '약간 싱겁다'가 각각 10.9%를 나타내어 대체로 음식의 간은 알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군에 따라 비교해 보면 남학생에서는 '알맞다'고 응답한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이 각각 86.0%, 81.7%, 59.0%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약간 싱겁다'고 응답한 학생은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에서 각각 3.5%, 6.7%, 19.0%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약간 싱겁다'는 응답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 0.01$). 여학생 중에서 '알맞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에서 각각 84.1%, 83.8%, 61.7%로 나타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알맞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약간 싱겁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이 각각 2.9%, 6.8%, 17.8%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남녀 모두 초등학생 보다 중등학생이 음식의 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고 '짜다'는 학생의 분포와 '싱겁다'는 학생의 분포가 비슷하여 음식의 간에 대한 표현을 확실하게 하고 있었다. 이는 신체성장과 함께 자아개념의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Williams 1988) 식사의 행동과 기호에 대한 표현이 확실해진 결과로 생각된다.

2) 학교급식에 대한 태도

급식에서 싫어하는 음식이 나오는 경우(Table 6) '싫어도 참고 먹는다'는 응답이 남학생은 초등 3,4학년군 51.7%, 초등 5,6학년군 38.3%, 중등 1,2학년군 18.6%이었고, 여학생은 초등 3,4학년군 62.9%, 초등 5,6학년군 37.3%, 중등 1,2학년군 6.2%로 남녀 모두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싫어

Table 6. Attitude on school lunch

UNIT : N(%)

		Male				Female			
		ES 3,4	ES 5,6	MS 1,2	χ^2	ES 3,4	ES 5,6	MS 1,2	χ^2
Attitude on dislike food	Eat it anyway	30(51.7)	23(38.3)	19(18.6)	19.574**	44(62.9)	28(37.3)	7(6.2)	67.567**
	Eat partly	15(25.9)	20(33.3)	35(34.4)	NS	14(20.0)	27(36.0)	37(32.7)	NS
	Do not eat at all	2(3.4)	9(15.0)	41(40.2)	31.072**	2(2.9)	11(14.7)	61(54.0)	65.385**
	Give it to friend	11(19.0)	8(13.4)	7(6.9)	NS	10(14.2)	9(12.0)	8(7.1)	NS
	Total	58(100.0)	60(100.0)	102(100.0)	-	70(100.0)	75(100.0)	113(100.0)	-
Kinds of food that you usually do not eat up	Soup	4(7.0)	4(6.7)	22(21.6)	10.006**	4(5.7)	3(4.0)	24(21.2)	16.280**
	Kimchi	21(36.2)	4(6.7)	10(9.8)	NS	15(21.5)	15(20.0)	22(19.5)	NS
	Meat, Fish	21(36.2)	19(31.7)	18(17.6)	NS	23(32.8)	18(24.0)	28(24.8)	NS
	Vegetables, Potatoes	9(15.5)	20(33.3)	22(21.6)	NS	9(12.9)	21(28.0)	10(8.8)	13.134**
	Dry side dish	2(3.5)	11(18.3)	25(24.5)	11.301**	12(17.1)	12(16.0)	23(20.4)	NS
	Milk	1(1.8)	2(3.3)	5(4.9)	NS	7(10.0)	-	6(5.3)	NS
	Total	57(100.0)	60(100.0)	102(100.0)	-	70(100.0)	75(100.0)	113(100.0)	-
A reason for not eating up your food	Food was cool	2(3.5)	2(3.3)	7(6.9)	NS	2(2.9)	2(2.7)	2(1.8)	NS
	Did not like the food	18(31.0)	22(36.7)	42(41.2)	NS	31(44.3)	38(50.7)	60(53.1)	NS
	The food not tasty	4(7.0)	21(35.0)	21(20.6)	13.814**	7(10.0)	25(33.3)	31(27.4)	11.671**
	Didn't have an appetite	8(13.8)	3(5.0)	17(16.7)	NS	8(11.4)	7(9.3)	16(14.2)	NS
	Never have tried the food before	12(20.7)	4(6.7)	2(1.9)	NS	1(1.4)	1(1.3)	1(0.9)	NS
	Serving size was too large	14(24.0)	8(13.3)	13(12.7)	NS	6(8.6)	6(8.6)	8(7.1)	NS
	Total	57(100.0)	60(100.0)	102(100.0)	-	70(100.0)	75(100.0)	113(100.0)	-
When too much food	Do not eat up	3(5.3)	9(15.0)	24(23.5)	17.866**	6(8.6)	9(12.0)	36(31.9)	15.384**
	Try to finish it	30(53.6)	33(55.0)	28(27.5)	15.700**	39(55.7)	26(34.7)	29(25.7)	16.809**
	Give it to friend	5(8.9)	1(1.7)	13(12.7)	NS	7(10.0)	10(13.3)	9(8.0)	NS
	Tty to get a smaller serving	18(32.2)	17(28.3)	35(34.3)	NS	18(25.7)	30(40.0)	39(34.4)	NS
	Total	56(100.0)	60(100.0)	102(100.0)	-	70(100.0)	75(100.0)	113(100.0)	-

** : $p < 0.01$ NS : not significant

ES 3,4 : Elementary school 3rd, 4th grade ES 5,6 : Elementary school 5th, 6th grade MS 1,2 : Middle school 1st, 2nd grade

하는 음식에 대한 거부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급식시 싫어하는 음식이 나오는 경우에 '조금씩 먹는다'고 응답한 남학생이 초등 3,4학년군 25.9%, 초등 5,6학년군 33.3%, 중등 1,2학년군 34.4%로 군간 유의차는 없었고 여학생에서도 초등 3,4학년군 20.0%, 초등 5,6학년군 36.0%, 중등 1,2학년군 32.7%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싫어하는 음식이 나오는 경우 '먹지 않는다'는 응답이 남학생이 초등 3,4학년군 3.4%, 초등 5,6학년군 15.0%, 중등 1,2학년군 40.2%였으며, 여학생은 초등 3,4학년군 2.9%, 초등 5,6학년군 14.7%, 중등 1,2학년군 54.0%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편식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 지속적인 편식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싫어하는 음식이 나오는 경우 '친구에게 준다'는 답변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녀 모든 군에서 유의차가 없었다. 목포지역 초등학생의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태도조사(조희숙 · 김영숙 2000)의 결과를 살펴보면 3학년이 6학년보다 먹으려고 노력하는 학생이 많았고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건강을 위해 참고 먹으려 하고 있으나 학년이 높을수록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거부감과 편식정도가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주로 남기는 음식에 대한 태도로 '국을 남긴다'고 응답한 것은 남학생의 경우 초등 1,2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에서 각각 7.0%, 6.7%, 21.6%로 군간 유의적 차이가 있었으며($p < 0.01$) 고학년군에서 국을 남기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또한 여학생에서도 초등 1,2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이 각각 5.7%, 4.0%, 21.2%로 고학년군에서 국을 남기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김치, 육류 · 생선류를 남긴다는 응답은 남녀 모든 군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채소 · 감자류는 여학생은 초등 3,4학년군 12.9%, 초등 5,6학년군 28.0%, 중등 1,2학년군 8.8%가 남긴다고 응답해 유의적 차이를 보였고($p < 0.01$) 특히 초등 5,6학년 학생이 남녀모두 채소를 남기는 비율이 높았다. 마른반찬을 남긴다는 응답은 남학생의 경우 초등 3,4학년군 3.5%, 초등 5,6학년군 18.3%, 중등 1,2학년군 24.5%로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마른반찬을 남기는 비율이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 0.01$). 여학생의 경우 초등 3,4학년과 초등 5,6학년은 차이가 없으나 중등 1,2학년은 마른반찬을 남기는 비율이 높았다. 우유는 전체 3%만이 우유를 남긴다고 응답했고 남녀 모든 군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음식을 남기는 이유로는 '음식이 맛이 없어서' 남기는 경우는 남학생 초등 3,4학년군 7.0%, 초등 5,6학년군 35.0%, 중등 1,2학년군 20.6%였으며, 여학생 초등 3,4학년군 10.0%, 초등 5,6학년군 33.3%, 중등 1,2학년군 27.4%로 남녀 모든 군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고($p < 0.01$) 초등 5,6학년은 초등 3,4학년이나 중등 1,2학년보다 음식을 남기는 이유가 맛이 없어서라고 한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에서 음식의 양이 많은 경우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남긴다'고 답한 학생은 남학생에서 초등 3,4학년군 5.3%, 초등 5,6학년군 15%, 중등 1,2학년군 23.5%, 여학생에서 초등 3,4학년군 8.6%, 초등 5,6학년군 12.0%, 중등 1,2학년군 31.9%로 남녀 모든 군에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고($p < 0.01$) 남녀 모두 초등학생일 때는 되도록 '다 먹는다'는 학생이 많았으나 고학년군 일수록 다 먹으려고 하지 않고 남기는 학생이 증가하였다.

3) 학교급식의 효과

Table 7은 학교급식의 효과에 대해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1가지만 선택하라고 하였는데 남학생은 초등 3,4학년군에서는 '몸이 건강하게 되었다'가 33.3%, '식사를 즐겁게 하게 되었다'가 20.8% 순이었고, 초등 5,6학년군에서는 '몸이 건강하게 되었다'가 25.0%, '식사를 즐겁게 하게 되었다'가 23.3% 순이었고, 중등 1,2학년군에서는 '식사시간이 일정하게 되었다'가 29.4%, '식사를 즐겁게 하게 되었다'가 22.5% 순이었다. 여학생은 초등 3,4학년군에서 '몸이 건강하게 되었다'가 47.1%, '편식이 고쳐졌다'

Table 7. Changes by the school lunch service considered by subjects UNIT : N(%)

	Male			Female		
	ES 3,4	ES 5,6	MS 1,2	ES 3,4	ES 5,6	MS 1,2
Total	58(100.0)	60(100.0)	102(100.0)	70(100.0)	75(100.0)	113(100.0)
Became healthier	19(33.3)	15(25.0)	22(21.6)	33(47.1)	14(18.7)	7(6.2)
Taker more balanced diets	11(19.3)	11(18.3)	15(14.8)	10(14.3)	20(26.7)	4(3.5)
Eat more regularly	4(7.0)	11(18.3)	30(29.4)	1(1.4)	11(14.7)	50(44.2)
Enjoy mealtime more	12(20.8)	14(23.3)	23(22.5)	8(11.4)	20(26.7)	26(23.0)
More interested in the ingredients of food	3(5.1)	2(3.3)	6(5.9)	5(7.1)	5(6.7)	4(3.5)
More interested in table manners	6(10.5)	3(5.0)	3(2.9)	5(7.1)	2(2.7)	1(0.9)
More interested in food sanity now	3(5.1)	4(6.8)	3(2.9)	8(11.4)	2(2.7)	14(12.4)

ES 3,4 : Elementary school 3rd, 4th grade ES 5,6 : Elementary school 5th, 6th grade MS 1,2 : Middle school 1st, 2nd grade

가 14.3%, 초등 5,6학년군에서는 '식사를 즐겁게 하게 되었다'가 26.7%, '편식이 고쳐졌다'가 26.7%, 중등 1,2학년군에서는 '식사시간이 일정하게 되었다'가 44.2%, '식사를 즐겁게 하게 되었다'가 23.0%로 남녀학생이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학년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식사시간이 일정하게 되었다'는 문항에 대해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이 각각 7.0%, 18.3%, 29.4%를 선택하여 고학년군으로 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차이를 보였고, '식사예절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문항에 대해서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이 각각 10.5%, 5.0%, 2.9%를 선택하여 고학년군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 '식사시간이 일정하게 되었다'는 문항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에서 각각 1.4%, 14.7%, 44.2%로 나타나 고학년군으로 갈수록 증가하였고, '몸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문항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에서 각각 47.1%, 18.7%, 6.2%로 나타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편식이 고쳐졌다'는 문항에 대해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이 각각 14.3%, 26.7%, 3.5%로 나타나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위의 결과에서 저학년이 건강과 편식교정을 급식의 효과하고 응답한 반면 고학년군으로 갈수록 식사시간이 일정하게 된 것을 급식의 효과라고 응답하였다.

4) 학교급식 개선 사항

Table 8은 조사대상자들의 급식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남학생에서 '반찬의 종류가 더 많았으면'하는 문항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에서 각각 32.2%, 58.3%, 55.9%로 고학년군에서 증가하였고($p < 0.01$), '급식 때 음악을 틀어주면 좋겠다'는 문항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에서 각각 18.6%, 36.7%, 52.9%로 나타나 역시 고학년군에서 증가하였으며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급식의 시간이 너무 짧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자의 경우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이 각각 16.9%, 20.0%, 33.3%로 고학년군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여자의 경우도 고학년으로 갈수록 '급식의 시간이 짧다'라고 하였다($p < 0.01$).

'전통적인 우리의 음식을 먹고 싶다'는 응답은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이 각각 44.1%, 18.3%,

Table 8. Other comments on the school lunch food

UNIT : N(%)

	Male				Female			
	ES 3,4	ES 5,6	MS 1,2	χ^2	ES 3,4	ES 5,6	MS 1,2	χ^2
Total	59(100.0)	60(100.0)	102(100.0)		70(100.0)	75(100.0)	113(100.0)	
I hope soup and rice served warmer	18(30.5)	14(23.3)	31(30.4)	NS	19(27.1)	28(37.3)	18(15.9)	11.152**
More varity of side dishes be served	19(32.2)	35(58.3)	57(55.9)	10.549**	22(31.4)	27(36.0)	75(66.4)	27.360**
The serving size should be increased	6(10.2)	5(8.3)	21(20.6)	NS	4(5.7)	1(1.3)	2(1.8)	NS
The serving size should be decreased	7(11.9)	4(6.7)	11(10.8)	NS	15(21.4)	16(21.3)	17(15.0)	NS
Others	9(100.0)	2(100.0)	(100.0)		(100.0)	(100.0)	(100.0)	
More traditional Korean food should be served	26(44.1)	11(18.3)	19(18.6)	14.924**	29(41.4)	18(24.0)	14(12.4)	20.198**
More Western-style food should be serviced	4(6.8)	49(6.7)	12(11.8)	NS	9(12.9)	9(12.0)	8(7.1)	NS
Student should be given a choice of between traditional Korean food or Western-style food	15(25.4)	35(58.3)	52(51.0)	14.740**	15(21.4)	38(50.7)	75(66.4)	34.972**
Innovative food	18(30.5)	14(23.3)	43(42.2)	6.392*	25(35.7)	31(41.3)	39(34.5)	NS
Students should be given enough time for meal	10(16.9)	12(20.0)	34(33.3)	6.545*	10(14.3)	10(13.3)	35(31.0)	11.195**
It is too noisy during mealtime	36(61.0)	28(46.7)	27(26.5)	19.442**	47(67.1)	33(44.0)	29(25.7)	30.613**
It is too quite during mealtime	4(6.8)	-	1(1.0)	7.592*	2(2.9)	-	-	NS
Listening music during mealtime would be appreciated	11(18.6)	22(36.7)	54(52.9)	18.672**	14(20.0)	34(45.3)	69(61.1)	29.406**

* : $p < 0.05$, ** : $p < 0.01$, NS : not significant ES 3,4 : Elementary school 3rd, 4th grade ES 5,6 : Elementary school 5th, 6th grade MS 1,2 : Middle school 1st, 2nd

18.6%로 고학년군에서 감소하는 차이를 보였고($p < 0.01$), '급식 때 너무 시끄럽다'는 응답이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이 각각 61.0%, 46.7%, 26.5%로 고학년군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 서양의 음식을 골고루 먹고 싶다'고 하는 학생은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에서 각각 25.4%, 58.3%, 51.0%로 나타나 고학년군에서 증가하였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는 학생은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에서 각각 30.5%, 23.3%, 42.2%로 군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반찬의 종류가 더 많았으면'하는 학생이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에서 각각 31.4%, 36.0%, 66.4%로 나타나 고학년군에서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 < 0.01$), '급식 때 음악을 틀어주면 좋겠다'는 학생은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이 각각 20.0%, 45.3%, 61.1%로 나타나 고학년군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급식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학생은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이 각각 14.3%, 13.3%, 31.0%로 나타나 고학년군에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전통적인 우리의 음식이 먹고 싶다'는 학생은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에서 각각 41.4%, 24.0%, 12.4%로 나타나 고학년군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급식 때 너무 시끄럽다'는 학생은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에서 각각 67.1%, 44.0%, 25.7%로 나타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감소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동 · 서양의 음식을 골고루 먹고 싶다'고 하는 학생이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에서 각각 21.4%, 50.7%, 66.4%로 나타나 고학년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밥과 국이 따뜻하면 좋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여학생의 경우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에서 각각 27.1%, 37.3%, 15.9%로 나타나 군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 < 0.01$).

이상의 결과들에서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반찬 종류의 증가와 충분한 식사시간, 다양한 음식을 접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저학년일수록 우리 전통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고학년일수록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동 · 서양의 음식을 골고루 먹고 싶어 하였다.

결론 및 제언

성장하는 과정에서 식습관 및 식생활의 태도와 학교급식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지역에서 동일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농촌형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3개의 초등학교 3~6학년, 중등학교 1~2학년 483명을 대상으로 1999년 6월 설문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는 남학생 222명(46.0%), 여학생 261명(54.0%)이고 초등학생이 55.3%, 중등학생이 44.7%였다.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등 1,2학년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며 군별 인원수는 각각 130명, 137명, 216명이었다.

2) 식생활태도조사에서 식사의 규칙성, 음식 섭취시 고려사항, 편식정도에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비율이 높고, 편식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었으며, 골고루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을 골라 먹는 경향을 보였다. 간식의 종류로는 남학생은 라면과 떡볶이를, 여학생은 과자를 많이 섭취하고 있고, 간식의 빈도는 여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간식의 빈도가 적어졌다($p < 0.01$).

3) 학교급식에 대한 의견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교급식에 대한 불만족의 비율이 높아졌으나 '조금 개선해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남녀학생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밥의 양은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부족하다고 한 반면($p < 0.01$) 중등학생은 많거나 적다고 한 학생이 많았다. 여학생은 고학년에서 밥의 양이 조금 많다고 하였고 반찬의 양은 남녀 모두 부족하다고 하였다. 음식의 간은 고학년이 될수록 '약간 싱겁다', '약간 짜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p < 0.05$). 급식에서 싫어하는 음식이 나오는 경우와 급식에서 음식의 양이 많은 경우 여학생은 저학년군으로 갈수록 '싫어도 참고 먹는다'와 '되도록 다 먹는다'는 응답이 증가하였고($p < 0.01$), 남학생은 고학년에서 남기는 비율이 높았다.

4) 남녀모두 고학년으로 갈수록 국을 남기는 비율이 증가하였고($p < 0.01$), 채소, 감자류를 남기는 비율은 여자 초등 5,6학년이 많았으며, 마른반찬은 남자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남기는 비율이 높았다($p < 0.01$). 음식을 남기는 이유는 '맛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학교급식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학년군이 건강과 편식교정, 고학년군이 일정해진 식사시간이라고 응답해 군간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급식에 대한 개선사항은 저학년군이 '급식 때 너무 시끄럽다', 고학년군으로 갈수록 반찬종류의 증가, 충분한 식사시간, 다양한 음식, 좋은 분위기의 점심식사를 희망했다.

본 조사의 결과에서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식사 습관이 불규칙적이고 편식이 심하며, 맛있는 음식을 골라먹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식사를 하는 태도가 바

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영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학교급식에 대한 태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주식의 양은 남학생이 많기를 원하는 반면 여학생은 적게 주기를 원하므로 자유 배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식의 양은 남녀 모두 많아지기를 바라므로 반찬의 양을 늘려야 할 것이다. 음식의 간에 대해 고학년일수록 까다로워져서 음식을 남기고 버림이 많고, 그이유가 간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 했으므로 음식의 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급식에 대해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개선해서 급식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급식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반영하여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급식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급식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영자 · 김영남 · 모수미(1991) :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식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 남녀학생의 비교. *한국영양학회지* 24(5) : 458-468

교육부(1996) : '96 학교 급식 연수회(후반기) 자료집

김숙희 · 유춘희 · 김선희 · 이상선 · 강명희 · 장남수(1996) : *가족영양학*, 신광출판사

김주혜 · 김복희 · 김희경 · 손숙미 · 모수미 · 최혜미(1993) : 서울 시내 고소득층 아파트 단지 국민학교 어린이의 체격과 식행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8(3) : 275-287

김정현 · 최주현 · 이민준 · 문수재(1998) : 서울 일부 지역 중학생의 식행동 특성에 관한 생태학적연구. *지역사회영양학회지* 3(2) : 292-307

노희경(2000) : 농촌 남년 중학생의 영양소 섭취, 식행동과 체형인식에 관한 비교.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5(25) : 280-288

박경복 · 김정숙 · 한재숙 · 허성미 · 서봉순(1996) : 급식교와 비급식교 아동의 식생활습관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1) : 23-35

박영숙 · 이정원 · 이미숙(1997) : 중학생 및 그 학부모의 학교 급식 만족도 : 직영 및 위탁(도시락) 운영 형태별 비교. *지역사회영양학회지* 2(2) : 218-231

박옥희 · 정경일(2000) : 광주지역 초등학교 영양사회 급식관련업무 및 초등학생의 식습관 조사. *목포대학 생활과학논집* 3 : 131-152

박종임 · 구난숙(1998) : 대전지역 급식학교 초등학생들의 식습관 조사. *대한영양사회학술지* 4(2) : 113-122

서울특별시 교육청(1992) : 학교급식효과분석(1986-1989)

심경희 · 김성애(1993) : 도시청소년들의 패스트푸드 이용실태 및 의식구조. *한국영양학회지* 26(6) : 804-811

유영상(1996) : 한 · 일 양국 초등학교 아동과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관한 의식 및 아동의 식품 기호도 비교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1) : 13-21

이건순 · 유영상(1997) : 중 · 고등학생의 식생활 행동과 영양섭취 실태와의 관계 연구. *지역사회영양학회지* 2(3) : 294-304

이경신 · 최경숙 · 윤은영 · 이심열 · 김창임 · 박영숙 · 모수미 · 이원묘(1988) : 도시 국민학교 급식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21(6) : 392-409

이미숙 · 최경숙 · 백수경(1994) : 충북 괴산군 송면 중학생의 영양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7(7) : 760-775

조정미 · 한용봉(1996) : 남녀 중학생의 식사 행동과 패스트푸드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2) : 105-119

이영미(1985) : 도시청소년의 식생활행동 및 식품가치평가 조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원묘 · 방형애(1996) : 아동의 기호도와 식습관에 관한 조사연구 (Ⅱ). *대한영양사회학술지* 2(1) : 69-80

이원희 · 김미향 · 한재숙(1988) : 대구시내 중학생들의 기호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영양식량학회지* 17(4) : 290-304

조희숙 · 김영옥(2000) : 목포지역 급식학교 초등학생들의 식습관에 관한 조사 연구. *목포대학생활과학논집* 3 : 117-130

전삼녀 · 노희경(1998) : 농촌초등학생의 식습관 및 식품기호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3(1) : 65-72

Williams SR, Worthington-Robert BS(1988) : Nutrition in children throughout the life cycle, pp.261-296, Times Mirror/Mosby college publishing

Wilson ED, Fisher KH, Garcia PA(1979) : Principle of nutrition, 4th ed., pp.449, John Wiley & Sons Comp

Story M, Resmick MD(1986) : Adolescents' views on food and nutrition. *J. Nutr Educ* 18(4) : 188-192

Tanner JM(1981) : Growth and naturation during adole scence. *Nutr Rev* 39(2) : 43-55